

■ 시상식 자료집

제 3 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일시 | 2005년 4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후원 | 소망화장품 **sOmang**

목 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심사 총평	5
-----------------------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농어촌

도고중앙교회	11
오중제일교회	17

중소도시

구세군 새성남교회	21
일산은혜교회	30
제천명락교회	36
창원한빛교회	41

대도시

새터교회	48
성터교회	55
효성중앙교회	59

특수지역목회

등지교회	63
------	----

[부록] 제 3 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소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제3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심사 총평

강영실 위원장(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땅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賞)》 선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신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소망화장품 강석창 사장님 및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 특수목회사역교회 부문을 후원해 주신 우리음식이야기 이영규 대표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간이 짧고 준비가 충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9개 교단의 총 28개 교회가 접수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교회사회복지 활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사과정과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평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심사과정

전체 심사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중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13명의 심사위원이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서류 심사의 목적은 이미 밝혀진 선정기준 10가지 기준(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교회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평가 방법의 활용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에 의거하였습니다.

특히 올리는 서류심사기준에서 몇 가지 수정·보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평가기준 중 유사한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종합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담임목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신청시 목회자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견을 함께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심사기준으로도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작년부터 시행된 특수목회사역교회 영역에서도 교회 전체에 대한 서류 심사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2단계는 실사과정입니다. 지난 1회, 2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실천분야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 회까지 서류심사과정을 통해 2배수로 후보교회를 선정했던 것과는 달리 신청교회 전체를 실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에 신청서류상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2개 교회를 제외한 26개 교회를 실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 13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도시, 특수목회지역으로 각기 2-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2주에 걸쳐 실사를 하였습니다.

이 때 실사 점수는 서류 내용의 진실성, 교회사회복지 담당 교역자나 담당 실무자의 교회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교회의 사랑실천 여건과 분위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수 부여는 방문한 심사위원 2인 각각의 평가를 합산 반영하였습니다.

3단계는 1단계 서류 심사점수와 2단계 실사 점수를 합한 점수(100점 만점)로 4개 영역별로 각각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4개 영역 구분은 접수된 교회의 지역별, 교인 수별 변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4개 영역은 대도시 교회, 중소도시 교회, 농어촌 교회 및 특수목회지역교회 등입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실사된 26개 교회는 대도시교회 7개, 중소도시교회 9개, 농어촌교회 4개, 특수목회지역교회 6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 4개 영역에 따른 합계 점수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 대도시 교회 3개, 중소도시 교회 4개, 농어촌 교회 2개, 특수목회지역교회 1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농어촌교회의 신청수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의 교회가 많았기에 농어촌 교회는 2개 교회로 중소도시는 4개교회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는 위의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두고 명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10개 교단 총무님들 가운데 참석하신 4분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 수합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0개 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2. 심사평

첫째, 1단계 서류 심사와 관련하여 1)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은 지역사회 문제 및 주민들의 욕구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주로 보았는데 실제 많은 교회들이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는 대에 배실까지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3)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의 항목에서는 대다수 교회들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평가까지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정상 지역주민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 욕구조사 등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4)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정도를 보면 선정된 교회들은 물론 많은 교회가 사회복지전문가 및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교회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대형교회의 경우 전체 일반헌금 가운데 10% 이상, 소형교회의 경우 약 3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발견된 점은 계획된 사업의 실천을 위해 특별헌금 형식의 예산을 별도 책정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6)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보면 모든 교회 교인들이 교회사회복지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7) 프로그램의 파급효과의 경우는 교회 창립 때부터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 교회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서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교회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8) 평가 방법의 활용도를 보면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평가 실시와 함께 평가 내용 및 결과를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활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9)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는 시설개방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 교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일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은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이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지역 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행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이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고민이 성도들로 하여금 복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수목회사역교회의 경우도 위의 10가지 기준에 의해 서류를 1차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교회 성도의 대다수가 본 교회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지만 이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있는가 하는 점과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사랑실천을 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셋째, 실사과정 중 평가된 것으로는 신청한 모든 교회가 접수된 서류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사회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서류에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다양하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과 교회사회복지 담당 교역자나 담당 실무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마무리 글

총 28개 교회를 대상으로 4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을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교회마다 너무나 훌륭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 훌륭한 교회들이 아깝게 선정되지 못했음을 심사위원들과 명예심사위원들 모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깝게 선정되지 못한 교회들이 내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賞)> 선정사업에 꼭 동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심사위원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賞)》 선정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격려·후원하며, 교회 시설의 개방운동,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자료화하여 보급·확산시킴으로써 교회사회복지를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리는데 헌신할 것을 주님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교회들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명예심사위원]

김남선 사관(구세군대한본영), 김일환 부장(기독교대한감리회), 박육병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심현승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김대원 신부(대한성공회), 윤지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김성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류태선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손병덕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형기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심사 위원]

강영실 위원장(한국성서대 교수), 김경식 위원(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수정 위원(한국디지털대 교수), 김현호 위원(한국디지털대 교수), 두준기 위원(휴먼테크기술사무소 대표), 라창호 위원(반석제로파 대표이사), 박정수 위원(목민교회 목사), 백은령 위원(총신대 교수), 오세란 위원(서울기독대 교수), 이만동 위원(항동교회 목사), 이영규 총무(우리음식이야기 대표이사), 조흥식 위원(서울대 교수), 최성재 위원(서울대 교수)



수·상·교·회·소·개

도고중앙교회



-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40-42
- † 담임교역자 : 이건열 목사
- † 교단 : 기독교대한감리회
- † 교인 수 : 84명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밑반찬 나누기, 결혼가정 아동돕기, 방과 후 프로그램, 집수리, 사회복지관 신축

본 교회는 성도 100여명 (아동부포함) 정도 모이는 24년 된 소규모 농촌교회입니다. 100여명의 모든 성도가 한 가족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신앙 생활하는 교회로서 7개의 속회와 청장년선교회, 두 여성교회 및 교회학교가 조직이 되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장을 만들어 제공하는 교회로서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드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가 있는 곳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자연의 유익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살맛나는 곳입니다. 특히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유황온천이 풍부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의 온천욕 관광의 명성은 인근 주변의 온천관광 개발지역으로 관광객 유치가 어렵게 되면서 쇠퇴해 가는 형편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교회도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는 취지에서 94년 12월 당회에서 담임목사는 사회복지목회를 제안하였고 당회원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 받아들이면서 사회복지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는 사회복지목회철학을 근거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끊임없이 교육하였고 그 결과 현재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본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 어린이집 (정원 99명)

영·유아보육서비스를 통해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건전한 영·유

아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을 돕는 일을 합니다.

➤ **독거노인 밑반찬 나누기 (20가구)**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수혜자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매주 월요일 6-7명의 자원봉사자가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거의 모든 것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방과 후 아동지도(평균 60여명)**

농촌지역은 사교육의 행태가 매우 열악하여 교회가 이 일에 개입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욕구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 피아노 속셈부분을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지역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 현재는 우리가 모두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 후 이동들을 대상으로 건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조부모 및 한 부모 아동 돕기**

근래에 들어와서 농촌지역에 가정해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해체가정의 아동들이 농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은 기가 죽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니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고,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에게 매일 저녁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방과 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키우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2005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 4명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만화도서관(조성 중), 재가복지, 지역아동센터, 가정상담실,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이러한 사회복지목회를 통해 얻은 것은 교회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삶 속 깊이 개입하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농촌의 작은 교회에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너무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 프로그램 소개

1. 독거노인 반찬나누기

① 시행동기 및 역사

농촌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독거노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누군가 이들을 섬기며 돌보지 않으면 노후의 삶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중에 경제적 빈곤문제, 육체적 질병문제 등이 심각하나 혼자 살면서 먹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노인들이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얻습니다.



이미 2000년 3월부터 시작하여 5년간 한주간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② 목적 및 목표

노인들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로지 나라와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한 노인 세대를 돌보고 섬기는 일은 마땅히 교회가 힘써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매주 1회씩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여 드림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과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③ 시설, 인력, 재정

시설은 부속건물 주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원 교회안의 자원봉사자와 비신자 자원봉사자 6-7명을 통해 음식을 만들고 차량봉사자 두 명이 배달해 드립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어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재정을 충당하였고 이들을 천사후원자라고 명명합니다.

④ 프로그램 내용

수혜대상자는 면사무소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선정했으며 매주 월요일 1회에 밑반찬 5가지를 찬합에 담아 드리고, 두 번의 명절, 어버이날, 성탄절 등에는 반드시 작은 선물을 포함하여 드렸습니다.

⑤ 파급효과 및 평가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자부심이 높고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

천한다는 긍지를 가지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10년 전 보다 교회는 양적으로 배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지지도가 높고 모두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아산시에서 국비 시비를 주어 사회복지관을 지어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⑥ 추후 계획

아산서부 사회복지관을 통해 아산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계획은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집, 즉 노인홈을 1호 2호... 증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가정해체된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들이 농촌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 때문에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들의 조부모님들입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결손가정 아동 돕기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결손가정 아동 돕기

① 시행동기

이 프로그램은 아산시로부터 2004년 7월부터 2개면에 있는 17명의 결손가정아동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근래에 두드러진 현상은 도시에서 가정이 해체되면 그 아동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는 농촌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문제로 허탈감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아동들 또한 정신적으로 황폐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분명한 것은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② 목적 및 목표

해당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 아동들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켜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감싸고 도와주어 사랑을 느끼고 살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받은 사랑을 이 사회에 돌려주는 신앙인격체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③ 시설, 인력, 재정

방과 후 아동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반찬나누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고, 교

육프로그램은 담임목사와 복지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아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④ 프로그램 내용

일주일에 반찬나누기 월요일 1회와 간식 목요일 1회를 전달하고, 매월 1회씩 특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게 하고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설악산 나들이 프로그램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자의 도움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학습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⑤ 과급효과 및 평가

시행한지 이제 8개월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수혜아동들이 매우 경계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식구가 되어 의도한 대로 잘 됩니다. 해당 가족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밝게 적응하려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⑥ 추후계획

그 아이들만 함께 묶어 놓으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정상 가정의 아동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래집단이나 동아리모임을 구성하여 정규적인 모임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공동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고중앙교회는 분명한 목회철학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자의 친구가 되어 주는 교회,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러므로 복음의 정신을 삶으로 표현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복지목회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말씀, 누가복음 4:18-19의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교회가 꿈입니다.



오중제일교회



- ✦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81-22
- ✦ 담임교역자 : 박영진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 ✦ 교인 수 : 70명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노인대학 교양강좌, 경로관광, 의료봉사, 한방침구봉사, 연말 구제, 무료 급식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75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1930년 4월 15일 정문관 영수를 비롯한 15명의 교인으로 교회가 시작됨).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농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고 침체된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악이 가득한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부여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서, 또한 첨단 물질문명을 자랑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복음으로써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농현상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날로 폐쇄해 가는 농촌 현실을 바라보며 마냥 한숨만 내 쉬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돌아오며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지역 사회를 위한 크고 귀한 비전을 소유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노인대학의 운영**입니다. 농어촌 노인들은 도회지 노인들에 비해 문화와 각종 복지혜택에서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습니다. 평생 극장구경 한번 해보지도 못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양강좌를 비롯해서 의료, 침술, 이·미용 봉사, 경로 관광, 무료급식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45년 전에 예장 합동과 통합교단의 분열로 인해 교회가 나뉘어져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한 채 지역 주민들의 외면 속에서 쓴웃음을 지어야 했었는데 이제 그토록 갈망하던 교회 통합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 교회 단일화와 지역 복음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만들어 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처음에 본인이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시했던 비전들이 당시에는 꿈만 같았고 뜬 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씩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땀 흘려 만들어 가는 미래는 분명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1. 경로관광

① 시행동기 및 역사

- 동기 - 교회 설립 70여년이 되도록 지역을 위해 봉사한 일이 없던 차 박영진 목사가 부임한지 1년여 만에 지역을 위해 봉사할 프로그램을 찾던 중 경로관광이 적합하다고여겨 시행하게 됨.
- 역사 - 2003년 4월, 2004년 4월, 9월, 2005년 4월 (예정)

- #### ② 목적 및 목표
- 지역 노인들을 섬김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함과 아울러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고자 함에 있음.

- ③ 시설, 인력, 재정 - 1회차는 100여만원, 2회차는 300여만원 등 규모나 예산이 크고 많아지고, 인력은 남녀전도회원이 봉사함.
- ④ 프로그램 내용 - 관광, 온천욕, 식사접대, 레크레이션 등.
- ⑤ 협력기관 - 없음.
- ⑥ 파급효과 - 노인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⑦ 평가 및 추후계획 - 자타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2. 노인대학

- ① 시행동기 및 역사 - 경로관광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후에 노인들의 반응이 좋아 이를 문화와 교육적인 면으로 연결하고자 노인대학 운영을 구상하게 됨. 2003년 8월에 1학기를 시작하여 2005년 3월로 4학기째가 되며, 6월 말에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됨.
- ② 목적 및 목표 - 지역 노인들을 섬김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함과 아울러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자 함에 있음.
- ③ 시설, 인력, 재정 - 시설은 예배당과 교육관 식당 등 교회 모든 시설을 다 활용하고 있으며, 재정은 교회 예산과는 별도로 찬조금과 광고료, 보조금, 성도 별도 헌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인력은 전담 2명을 비롯 남녀전도회에서 봉사하고 있음.
- ④ 프로그램 내용 - 대학교수와 사회저명 인사의 강의와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장기자랑, 한글교실 등으로 진행되며, 여건에 따라 의료 봉사 등을 실시함. 전술한 경로관광을 발전적으로 노인대학 관광으로 대체됨. 아울러 정보화 시설을 갖추는 대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임.

⑤ 협력기관

2003년 - 없음

2004년 - 전라북도여성발전위원회

2005년 - 부안군 사회복지과 (예정)

⑥ 파급효과 - 불신 노인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출입하며 분위기에 젖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접착점이 됨

⑦ 평가 및 추후계획 - 인근 소규모 교회들에 자신감과 동기의식을 부여해서 문화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사료되며, 몇몇 교회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에 있음.



※ 지난 4월 17일 45년 만에 오중제일교회와 오중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병하며 부안동부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새성남교회



-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2
- ☎ 담임교역자 : 김규한 목사
- ☎ 교단 : 구세군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아동방과 후 공부방, 무료 점심/저녁 급식, 재밌는 영어교실, 재밌는 미술 교실, 영화상영

☞ 구세군 새성남교회의 목회철학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 예수님의 목회를 본받는 교회)

구세군 새성남교회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3대 목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행사, 프로그램과 예산 집행 등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준 삼아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려는 교회입니다.

☞ 구세군 새성남교회의 비전

1.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

① 교육목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마 9:35)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는 ‘가르치심’, 즉 교육목회였습니다. 우리 구세군 새성남 교회의 가장 중심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목회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공동체의 취약성은 훈련의 결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자라고 열매 맺고 세상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 구세군 새성남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② 주민목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원문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교훈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지상 명령은 교육 명령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백성들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교육의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 새성남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 지역사회의 주민을 가르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전도하는 교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두루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마9:35)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 구세군 새성남교회의 두 번째 목회 비전은 기도와 전도,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전도에 대한 정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구세군 새성남교회의 영원한 근본으로 삼고 싶습니다.

유명한 에밀 브룬너(Emil Brunner)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써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 새성남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현해 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3. 치유하는 교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병자와 약자를 돌보고 고치고 구제하고 복지를 베푸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는 결국 그 교회를 통해 교우들의 가정과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가정과 사회가 온갖 상처로 얼룩져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세군 새성남교회를 통한 치유의 사역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행복한 사회, 더 밝고 건강한 사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4. 비전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교회의 미래는 그 공동체가 헤쳐 나가야 할 미래를 위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적 자원의 준비는 교회의 꿈나무들인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분야에서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을 양육하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 구세군 새성남교회는 비전의 미래를 위해 젊은이를 소중히 여기고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1. 구세군 새성남복지센터

(1) 기관현황

① 설립목적 및 연혁

구세군 새성남복지센터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결손·결함이 아동들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아동들이 미래를 희망차게 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불안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실행한다. 정서안정을 목적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지원하는 한편,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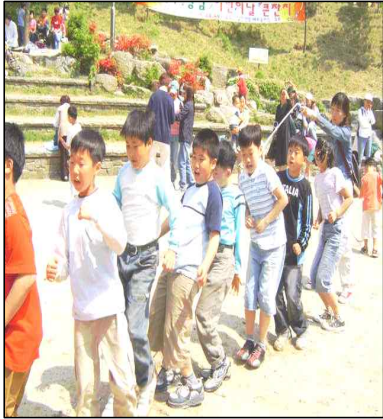


②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 무료 공부방

- 맞벌이 부부나 가정 사정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위주로 한다.
- 방과 후 오후 2시부터 저녁 7(2시-4시 학습)시까지 공부방을 개방한다.
- 학교숙제를 필수로 하고, 학교진도에 맞추어 교재를 구입한다. (각종 교재 무료 지원)

- 수준에 맞게 문제지를 고르고 가급적 개별지도를 중점으로 한다.
- 주 2회씩 구구단, 기초 한자 등 소홀하기 쉬운 과목을 점검한다.
- 미취학 학생은 한글, 수셈 등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기초를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 무료 급식

- 점심급식 :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이나 미취학을 대상으로 맞벌이나 한 부모가정일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 곧장 공부방으로 와서 점심을 함께 먹는다.
- 방학 점심 급식 :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하지만 방학 때는 많은 아동들이 결식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 이에 공부방에서 점심 급식을 실시한다.

- 저녁급식 : 시설의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녁급식을 매일 실시한다.

➤ 급식지원

- 학기 중에 10명의 급식비 (월 40만원) 를 제일초등학교에 지급한다.
- 교육청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아동이 발생할 경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식비가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상황을 방지해 보고자 한다.

➤ 영어교실

-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이대로 계속될 경우 정상적 아동들과의 괴리가 멀어져 회생하기 힘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 외부에서 영어 교육에 경험이 많은 자원봉사자가 여러 가지 미국식 교재로, 선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주 1회 자원봉자가 내방하여 실시한 교육 내용을 일주일 동안 비디오테이프를 반복하여 발음, 말하기 위주로 교육한다.



➤ 미술교실

- 학교 미술교실과는 별도로, 미술 심리치료 과정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교육한다.

- 주로 공동 작업과 손동작을 이용한 미술 작업을 한다.
-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여 저, 고학년의 진도를 다르게 한다.
(저학년 - 크레용 그림, 고학년 - 소묘 등)

➤ 현장체험

- 월 1회 실내 공부방을 떠나서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하천체험, 공중체험 등 직접 피부로 접촉하며 자연과 하나가 된다.
- 연합 (성지연) 체험활동을 통해 이웃 친구들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외부활동

-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주 1회 (月) 정도 인근 운동장에 가서 마음껏 뛰어 논다.
- 인근 대원공원, 초등학교 운동장 등 공간이 넓은 곳을 적극 활용한다.
- 종목으로는 축구, 농구, 피구 등 공놀이 이며, 얼음땀, 꼬꼬미 등 전래 놀이를 한다.

➤ 독서지도

- 학습지도 시작하기 전에 단 1페이지라도 글씨를 읽어서 무엇이든 생각나는 것을 독서록에 적는다.
- 이동도서를 많이 확보하고 다양한 종류의 책 (위인전, 아동문학전집 등) 을 구비하여 많은 간접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의 삶을 투영하는 기회를 갖는다.

➤ 캠프

- 연 1-2회 방학을 이용해서 2-3일의 캠프를 떠난다. 주로 공동체 놀이와 개인 놀이로 놀이를 하는 사이에 마음이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는다.

(2) 꿈바라기 공부방 운영 프로그램

① 사업의 필요성 (문제 및 욕구 분석 포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지역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하 전입세대가 많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곳에 들어와서 성공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이곳을 빠져 나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곳의 학생 중 3-40%가 결함 가정일만큼 한 부모나 조부조모의 보살핌을 받고 살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좀 나은 편이다. 때문에 학원에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학원에 아예 다니지 못하고 온종일 혼자 지내야 하는 형편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문제를 가진다. 학원에 여러 개 다니는 경우는 아동을 돌봐줄 여

력이 없어 방치된 것이며 부모의 따스한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하루 종일 방치된 아동들이다. 돈 천원을 손에 들고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으로 밥을 삼고 여기저기 떠돌며 지낸다. 학기 중에는 2학년 이상일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방학 때는 끼니가 문제가 된다. 집에 쌀이 있어도, 돌보는 어른이 집에 없다면 때에 맞추어서 숟가락을 들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저학년들은 남은 시간에 놀 곳을 찾지만 중·고생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이 지역은 따스한 온기와 정성어린 밥이 있는 공간이 필요한 위치임에 틀림없다.

②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대 무엇이든 빠르게 변해가고, 사람들에게 무리한 삶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삶의 형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 가장 해악은 가정의 해체이다. 부모가 이혼하고 어른들은 모두 돈을 벌려고 나간 사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아동들이다. 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살핌과 교육, 애정 등 많은 결핍요소를 가지고 성장해 간다. 특히 성인들은 어떻게든 견디어 가지만 아동들은 그 시기에 받아야 할 애정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각박하게만 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들이 내일에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당면한 환경을 이겨 낼 것이다. 오늘의 삶을 방식으로 공부하고 독서하고, 열심히 논다면 내일에 이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꿈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고,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확실히 이겨서 이 사회에 좋은 시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오늘을 즐겁게 하고 내일의 꿈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

- 세부목표 1 : 결함가정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점심, 저녁 급식을 실시한다.
- 세부목표 2 : 빈곤가정 아동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세부목표 3 : 아동들의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③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수

대상구분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단위수(명)
일반 대상	성남시 중원구 중동	약 7,250가정
위기 대상	성남시 중원구 중동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 한 부모 자녀, 조부모 자녀	수급자400명
표적 대상	위험집단 아동 중 본 기관을 직, 간접 이용아동	50명
클라이언트 수	표적 집단 아동중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아동	30명

④ 신청사업의 기대효과

꿈바라기 공부방에는 급식지원 프로그램,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정서 안정 지지 프로그램이 있다. 급식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의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빈곤 가정의 급식문제를 지원해서 아동의 영양 상태와 심적 안정을 도모한다. 자신이 이 사회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신감을 갖고 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지지한다.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최고의 가치인 학습능력 향상에 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맺어가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기능을 심어준다. 정서 안정 프로그램은 학원이나 학업에 너무 찌들리지 않고 그 나이 또래에 즐겨야 하고 또래에 알맞은 놀이를 하므로 정서적 안정과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한다.

⑤ 세부사업내용

사업명	일정	목표	담당자	사업진행내용
급식지원 프로그램	2005년 1월-12월 (매주 월 - 토)	아동 기본 식생활 보장	김규한	점심급식, 저녁급식, 급식비 지원
학습능력향상지원 사업	2005년 1월-12월 (매주 월 - 토)	학습능력향상으로 학교생활과 미래에 자신감고취	강태식	영어교실, 학습지 지도, 숙제지도,
정서안정 지원사업	2005년 1월-12월 (매주 월 - 토)	즐겁고 재밌는 놀이 속에서 정서함양	임혜현	미술교실, 놀이, 캠프, 체육활동

· 경험적 근거

2004년 3월 26일부터 구세군 새성남 복지센터는 꿈바라기 공부방을 개원하고 진행해 왔다. 수천만원을 투자해 새 단장을 하고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가장 인간 삶의 기본인 급식문제를 해결하려 힘썼다. 편부 가정의 아동의 경우 1학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다. 아침에는 일찍 일터로 나가시는 할머니와 아버지, 언니가 있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지 못한다. 학교도 지각하기 일쑤다. 점심은 과자와 음료수이다. 이러한 때에 점심급식을 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아이가 생기가 있어졌다고 했다. 이것은 한 예이다. 한 아동을 위해서라도 수 천 만원이 투자 되어서 밥 먹는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의 성과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인지 눈에 띄게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없다. 다만 구구단, 알파벳 등 기초적인 학습을 빼 놓지 않고 한다. 독서나 그 외 책을 즐겁게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이 계속된다면 학습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정서면에서는 그 성품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서로 즐거워하고 안아주고, 눈을 마주치며 관계를 형성학 아동들끼리 의사소통, 타협 등의 모습은 발전했다. 외롭게 만들지 않기, 약점 놀리지 않기도 아동들 사이에서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과제 : 아동들이 자라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고 사회를 당당히 헤쳐나 갈 것이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공부방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중산층에 뒤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방 뿐 아니라 아동의 부모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미래를 염려해야 한다.

· 사업시행회수

시행기간: 2004년 3월 25일 - 12월 31일

시행일수: 주 5일 × 40주 = 200일

시행회수(이용자현황)

- 공부방이용 아동 : 4,019명
- 급식(점심 + 저녁) = 10,594명

⑥ 사업의 평가방법

성과평가	급식지원 사업	학습향상지원 사업	정서안정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평가지표	연중, 월중 급식에 참여한 학생의 숫자를 보고 결과확인	1.독서나 학습에 임하는 태도 2. 학교 담임과 연계 성적과 학습태도	아동의 가정생활과 친구 또래 사이의 관계 형성을 가족에 물어본다.	아동개인과 가족을 면접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설문지등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
평가도구	부모, 급식출석부	담임을 통한 태도, 성적 점검	가족 면접, 친구 또래 집단과의 생활과정	면접, 설문
평가방법	사업 전과 후 비교평가	사업전과 후의 태도와 성취도 비교	사업전과 후를 비교	면접과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본다.

⑦ 추후 계획

· 시설 확장 계획 : 현 노후된 집단지도 시설 45평 규모에서 리모델링 및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05년 5월까지 공사완료예정.

· 프로그램 신설 계획 : 교회와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각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진행하여 주·야간에 걸쳐서 사회복지, 교육복지, 문화 복지를 위해 종합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산은혜교회



-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28번지
- ☞ 담임교역자 : 강경민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 ☞ 교인 수 : 1000명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쉼터 (암환자들을 위한 공간), 장애우 복지시설 (뇌성마비, 정인지체, 시각장애, 자폐아 등), 사회봉사위원회, 장학 위 (정발고학생 및 한동대 외국인 학생)

일산은혜교회는 영혼구원과 이웃사랑의 두 날개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1) 가끔 '우리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혹은 '우리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럴 때 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우주적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1세기 교회나 20세기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아시아 교회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타종교와는 너무도 다르게 그 우주적 특성, 다시 말하면 보편성이 너무 강해서 특수성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의 보편성이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교제, 섬김(봉사), 전도(선교)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변함없이 지향해야 할 5대 핵심가치입니다. 이 5대 핵심가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의 진리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2)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교회의 5대 핵심가치라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근본문제는 교회의 존재이유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건강해야 하는가.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야말로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이유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28:18-20) 과 예수님의 대 계명 (마23:37-42)

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데 이론을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상명령과 대계명은 평해 구조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영혼구원의 열정을 갖는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땅에서는 몸이 없는 영혼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영혼에 무관심한 것은 죄입니다. 영혼구원보다 본질적인 이웃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관 때문에 일산은혜교회는 설립당시부터 전도 (해외선교포함) 와 사랑의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본질에 충성하고자 했을 뿐인데 기운실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3) 요즈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특수한 교회 배경 때문에 비교적 빠른 성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물론 대부분 수평이동에 의한 교회성장이었습니다. 작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셨습니다. 담임목사가 설교 잘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서 기존성도들이 모여드는 목회는 그만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신 당신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기존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알리기는 이제 그만하자. 순순한 전도에 의해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자.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부흥의 길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의 목회철학은 영혼사랑이요, 영혼구원입니다. 교회성장의 도구로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 가정교회 목회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이 목사나 혹은 인간집단의 욕망일 때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부흥은 모든 성도들의 꿈이어야 합니다.

가정교회! 새로운 유행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저력이 가정교회에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그동안 실제적으로 소홀히 했던 영혼구원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갈 것입니다.

영혼구원, 사랑의 실천 이것은 교회의 양 날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1. 쉽터운영(암환자들을 위한 공간)

① 시행동기 및 역사

교회에 위치가 암센터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암센터 환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 암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치료를 받게 되는데 병원의 병실부족으로 3주 또는 6주정도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우들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연고도 없이 일주일씩 있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 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는 환우들은 가까운 곳에 방을 마련하여 쉬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은 환우들은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어 서 교회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우들에게 쉽터를 제공하여 치료받을 동안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많은 자금이 일시에 들어가는 일이어서 기도 중에 있었는데 암센터에 치료 받고 있던 환우 중에서 교회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교회에 일천만원을 암환자 쉽터를 위해 기탁하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2004년 4월에 쉽터가 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② 목적 및 목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신앙인만이 아닌 불신자들까지 누구나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항암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갑자기 수치가 떨어져서 투여하지 못할 경우 정상 수치가 돌아올 때까지 쉴 수 있는 곳이며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은 3주에서 6주정도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하루에 불과 10분에서 15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쉽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③ 시설, 인력, 재정

- 시설 - 지금은 단독건물 3층을 전세로 구입해서 쉽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립 암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환우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 인력 - 매일 각 선교회 회원들이 교대로 환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 재정 - 현재 필요한 물품 제공은 교회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몸

만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무엇이든 무료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④ 프로그램 내용

모든 환우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기에 쉼터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2-3차례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협력기관

국립 암센터



⑥ 파급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쉼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우들이 편안하게 가정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으로 인해 환우들의 심리적 안정감으로 치료효과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⑦ 평가 및 추후계획

쉼터 운영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환우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소가 협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인원제한으로 인해 받을 돌려야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쉼터 전용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터 전용건물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암 환우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그 날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 사회봉사위원회 (참 좋은 집, 은빛사랑교회, 행복의 집 돕기)

① 시행동기 및 역사

· 동기 -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로써의 역할 중에 구제와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구제를 할까 를 고민하는 중 시에 자문을 구하여 연결케 된 것입니다.

·역사 - 약 5년 전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② 목적 및 목표

· 목적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13:34) 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레19:18) 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 목표

- (1)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 (2) 예수님이 섬긴 것같이 희생·봉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 (3) 소외되어 주변으로 몰린 이웃에 친구가 되어 주는 교회가 됩니다.
- (4) 봉사뿐 아니라 물질로도 어려운 환경을 돕는 교회가 됩니다.

③ 시설, 인력, 재정

- 시설 - 치매 및 장애 노인 생활시설 3곳
- 인력 - 45명
- 재정 - 2,570만원



④ 프로그램 내용

· 이·미용 봉사 - 매월 1회 이상 정한 시간 (3째 주일, 화요일) 에 20~30여명이 참여하여 약 1시간 봉사를 합니다.

· 목욕 및 청소 - 이·미용 봉사와 함께 일부인원은 목욕과 청소, 손톱소지, 말동무 등으로 돕습니다.

⑤ 협력기관

· 이·미용 봉사는 교회 내에 이·미용 기술자격이 있으신 분들과 교회 밖에 이·미용 사업체와 연결하여 10여명 이상이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 이·미용 봉사 사업체로는 크리스찬헤어샵, 노블미용실, 아카데미미용학원, 타 교회 집사님

⑥ 파급효과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봉사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

기적인 희생봉사로 인해 각 기관에서 고마워하고 있으며, 노인 분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며, 봉사하는 기쁨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⑦ 평가 및 추후계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봉사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 기쁨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후의 계획은 더 많은 기관을 돕기 위하여 봉사인원도 계속 증가시키고 재정도 늘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천명락교회



- ☞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52-36
- ☞ 담임교역자 : 이명선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 ☞ 교인 수 : 1743명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명락노인종합복지관, 명락경로대학(원), 명락주부대학, 명락장학회, 명락청소년선도위원회

➤ 교회표어 : 섬김과 나눔의 교회

➤ 주제성구 :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막10:45)

➤ 본 교회는 지난 21년여 동안 인간 구원과 사회적인 책임 및 복지사회를 위하여 종교와 교파를 초월하여 제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학생, 주부, 노인들을 위하여 명락유치원(84년~2003년), 명락교회의 신협(명성신협 84년 1월), 명락주부대학(84년 3월), 명락독서실(85년), 명락독서실(85년), 명락묘지(86년), 명락장학회(87년 1월), 명락공부방(90년 9월), 명락소식(90년 10월) 명락경로대학(91년 6월), 환경보호 위원회(92년 7월), 경건절제 위원회(93년 1월), 청소년 선도위원회(96년), 건강교실(2000년 12월), 물리치료실(2000년 12월) 등을 설립하여 성숙한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 이러한 12가지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위해서 1,200여 평의 대지 위에 1,000여 평 건물, 사회봉사관 3층 408평을 건축하였고, 2003년 12월 명락복지재단 설립과 2004년 3월 명락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자원 봉사자와 1,930여명의 교인이 1억 5천 만원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힘쓰고 있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 이명선 - 부목사 : 이 철 남윤주
- 전도사 : 김정우 강희숙 신재훈 최병준
- 장 로 : 석창열 장도현 장태상 권봉일 박민규 이동희 신성호 차주욱 유세양 고선곤
박삼규 김상호 오대식 장세우 이원희 권순태 엄재호 장현덕 김영춘

➤ 전화번호 : 043-644(7)-3337 팩스 : 043-645-1333 홈페이지 : www.mrpc.or.kr

❖ 프로그램 소개

1. 명락경로대학

(1) 시행동기 및 역사

1991년 6월 2일 개교하여 다음해 12월 5일 제1기 졸업생 106명을 배출한 이래 2004년 12월까지 총 1,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락경로대학(원)은 제천시에 속한 노인들에게 현대 사회 속에서 고령에 이르면 느끼게 되는 고독과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변천하는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여 젊은 세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노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지식, 풍부한 취미생활을 습득하도록 하며, 노인선교와 노인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의 취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교양을 높여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하여 새로운 이웃과 사귀를 통하여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찾고 보람된 여생을 갖도록 하는데 본 노인대학을 하는 이유가 있다. 특히, 이명선 목사는 1984년 1월10일 명락교회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정의사회 구현 및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종교와 교파를 초월하여 제천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천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시민상을 제시하였으며 전국의 교회 및 교회노인학교를 대상으로 총 450여회의 강연을 통하여, 전국교회에 사회봉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경로대학, 사회복지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시하여 교회사회복지의 발전의 기틀이 되는 명락복지재단을 설립, 교회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2) 기본방향

- 본교의 사회교육의 장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연장교육으로 노인생활을 보다 보람되고 알차게 한다.
- 노인기의 건강생활과 취미를 개발하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한다.
- 내가 사는 이웃과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노인이 되게 한다.
- 인생의 마무리를 바로 하게 한다.
- 내세를 준비하도록 한다.
- 노인복지 정책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정부기관에 건의, 해결방안 및 개선책을 연구 시행하도록 한다.

(3) 교훈

- 건강한 노인
- 존경받는 노인
- 사랑받는 노인



(4) 교육내용

- 교육기간 : 2년 (4학기)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10:00-15:00
- 교육장소 : 명락노인복지회관 경로대학실
- 교육방법 : 강의와 실습
- 자 료 비 : 무료
- 교육내용 : 노년기의 생활보장, 건강관리, 부모와 자녀, 노년기의 법률상식, 건강 체조, 노래와 민요, 취미생활, 경제, 효도관광, 비디오상영, 체육대회 등등
- 강 사 진 : 그 분야의 전공한 강사
- 재 정 : 교회보조 25,000,000원으로 운영



(5) 명락경로대학 프로그램 일정 (상반기)

월	일	교육 과 목	강 사	비 고	진 행
3	4	입 학 식			우애자
	11	가 정 문 제	이명선	명락교회 담임목사	이영순
	18	행복한 노년	김종생	월평종합사회복지관장	우애자
	25	노 인 건 강	소경순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이영순
4	1	보건소 건강상담		고혈압, 당뇨, 식이요법	우애자
	8	교양과 상식	홍미혜	가나안농군학교 영양실장	이영순
	15	직 업 문 제	권기수	단양군 부군수	우애자
	22	건강한 노인생활	김찬호	감초당 약국 약사	이영순
	29	노 인 복 지	경석수	전 충주시청복지과장	우애자
5	6	시 사 문 제	정상진	청주대학교 유전공학과	이영순
	13	종 교 학 습	유경식	거진중앙교회 담임목사	우애자
	20	충북지역 노인학교 연합회 소풍			
	27	법 률 학 습	송인만	변호사, 노인문제상담소자문위원	이영순
6	3	교양과 상식	왕종근	아 나 운 서	우애자
	10	시 사 문 제	이상무	검찰조사계장	이영순
	17	가 족 관 계	지은재	백석교회 담임목사	우애자
	24	사 회 활 동	지효신	대원과학대학 교수	이영순
	1	종 교 학 습	이 철	명락교회 부목사(종강)	우애자
7	5,6	하 기 수 련 회			



(6) 협력기관

이름	기관명	담당 역할	할당시간 (단위:일주일)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송인만	송인만 변호사	법률상담	주당 10시간	변호사
엄승호	엄승호 산부인과	건강교육, 무료진료	주당 10시간	의사
김기상	제천시의원	노인교육 등	주당 10시간	제천시의원
윤광식	이하의 집	노인상담, 건강교육	주당 10시간	이하의집 원장 사회복지사 1급
육종석	세명대학교	노인교육	주당 10시간	행정학 교수
김종생	월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노인교육	연 4시간	사회복지사 1급
이건모	대원과학대학 교수	노인교육	연 4시간	사회복지과 교수
정윤애	한밭대학교 교수	노인교육	연 4시간	상담전문교수
0 0 0	세명대 한의대	무료한방진료	연 4시간	무료진료
0 0 0	푸드뱅크	무료급식지원	연 3시간	식품지원
0 0 0	제천서울병원	무료건강검진	연 3시간	의사
0 0 0	제천시보건소	무료건강검진	연 3시간	의사
0 0 0	한국건강관리협회	무료건강검진	연 3시간	건강검진

※ 0 0 0 은 개인이 아닌 단체협력기관임.

(7) 파급효과

- 노인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선교활동 강화
- 교회 사회복지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소외계층 보호시스템 구축

- 복지관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교회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재가복지네트워크 구축

(8) 평가

- 분야별 실적산출 및 자체평가제 도입 (명락노인종합복지관 평가시스템 활용)
- 지역 내 소외계층 보호시스템 실행 여부 평가
- 노인사회교육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노인선교활동 강화 여부 평가

(9) 추후계획

-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 방임노인 발굴을 통한 봉사자, 후원자 지원체계 확립
- 탁구장, 당구장, 취미반 등 다양한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인원 증대

창원한빛교회



-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42번지
- ☞ 담임교역자 : 윤희구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 ☞ 교인 수 : 2,000명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늘푸른교실, 실버교육원, 주간보호센터, 결연사업
- ☞ 2005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지역복지 (1:1결연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수화교실, 비전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훈련학교), 노인복지 (경로대학, 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각종 교양 / 취미반 운영), 장애우 복지 (늘푸른교실 운영, 장애아동 1:1결연 서비스)

실, 비전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훈련학교), 노인복지 (경로대학, 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각종 교양 / 취미반 운영), 장애우 복지 (늘푸른교실 운영, 장애아동 1:1결연 서비스)

한빛교회의 연혁

창원 한빛교회는 1978년 10월 29일에 변제창 전도사와 다수의 성도들이 모여 개척에 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교회개척 4개월 후인 1979년 3월 6일에 윤희구 목사가 부임하여 지금까지 27째 교회를 섬기고 있다. 개척 초창기 창원공단이 들어서서 허허벌판에 5년 여간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느라 영적으로 탈진한 윤희구 목사는 때마침 제자훈련을 만나 오늘까지 18년을 한결같이 훈련목회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왔고 이로서 지역교회 성장의 좋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빛교회는 현재 훈련된 평신도들에 의해서 10개의 사역국에 소속된 50여개의 사역팀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일하든지 하자”라는 모토 아래 모든 성도들이 훈련의 현장이 아니면 사역의 현장에서 저마다의 받은 은사와 관심을 따로 팀사역에 열정을 아끼지 않는 평신도 중심의 건강한 교회이다 (사역참여율 50% 이상) . 그 10개의 사역국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귀한 사역이 바로 사회복지국 사역이다.

한빛교회의 사회복지사역

1. 경로대학 운영 - 한빛경로대학 제1회 입학식이 1993년 3월 18일(목)에 37명의 어르신들로 시작되어 12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500여명의 경로대학생들이 매주 참여하고

있다. 매주 다양한 강연과 한글, 영어, 스포츠댄스, 수지침, 제니센 등 다양한 교양/취미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1박 2일의 야외학습 1회와 당일 일정의 야외학습 2회를 가지고 있다.

2. 공홀사역 - 1997년 가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도래로 어려움을 겪는 결식자들을 위하여 3년 여간 점심을 매일 무료로 제공하는 공홀사역을 실시하였고, 이와 유사한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3. 선한이웃센터 운영 - 1997년부터 창원공단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하여 전담교역자와 사역자들을 세워 봉사해 오다가 이웃에 위치한 남산성결교회에서 같은 봉사를 하고 있기에 사역중복으로 인해 사역을 이양하고 현재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예배에 진력하고 있다.

4. 장애우 사역 - 1999년 11월 장애우사역을 발족하여 장애우들을 섬기고 있으며, 현재 주일 오전11시에 장애아동을 위한 늘푸른교실을 개설하였는데 80여명의 자원자들이 매주 참여하여 섬기고 있다. 늘푸른교실에서는 매주 장애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애우들을 위한 치료사역 (언어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을 병행하고 있고, 장애아동과 1:1결연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섬김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5. 무료진료 사역 - 2001년 10월 28일에 한빛 의료선교팀이 발족되어 한 달에 정기적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과 멀리 해외 (2004년 8월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 에까지 나가 무료진료로 봉사하고 있다.

6.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 한빛교회는 지난 2004년 11월 18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고령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장애, 경증 치매노인들을 낮 동안 돌보는 사역을 맡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변처리, 개인위생관리, 생활용품관리 등의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며, 이용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와 간식이 제공하며, 여가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다양한 취미생활, 오락, 운동 등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 체크 및 물리치료, 수지침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담 간사, 전문 요리사 및 봉사자들이 섬기고 있다.

7. 한빛복지재단과 한빛복지관 운영 - 한빛교회의 사회복지 사역이 방대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사역을 위하여 2002년 10월 19일에 한빛복지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한빛교회의 모든 사회복지 사역은 한빛복지재단 산하로 통할 하였고, 이로써 교회 내부적인 한계를 넘어 지역민 전체가 이 일에 참여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는 명실상부한 사회복지 사역으로 활성화되고 확장되게 되었다. 한빛복지재단은 현재 이사회 (이사장 윤희구 목사와 6명의 이사), 감사, 운영위원회, 사무국, 지역복지, 노인복지, 장애우 복지 등의 부서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빛교회는 한빛복지재단이 창설되기 2개월 전인 2002년 8월 29일에 복지관 (대지352㎡, 연 건평 492㎡) 을 구입하여 제반의 복지 사역에 복지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교회 본관 건물과 별관 교육관들은 평일에 사회복지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향후 노인복지회관 (수양관) 건립을 위해 현 창원병원 뒤편의 공원녹지 7,600평의 부지를 마련해두고 있다.

❖ 프로그램소개

1. 한빛노인주간보호센터

(1) 시행동기 및 역사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우리 지역에는 낮 동안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창원지역에도 노인들을 낮 동안 돌보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지만 시설의 사정상 많은 모든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연혁	2004. 11.	노인 주간보호센터 시설 등록
	2004. 11. 18	노인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2005. 2. 현재	7명의 어르신이 이용

(2) 목적 및 목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낮 동안 시설에 입 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재활 및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와 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충하면서 더
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하고자 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시설개요

시 설 명	한빛노인주간보호센터
시 설 장	제 운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신월동 45-1
전화번호	055) 281-0691
FAX	055) 281-6868
홈페이지	www.hanbit.or.kr
시설규모	1층, 50평
운영방법	경남 창원시 신고
운영일자	2004 년 11 월 18일부터

- 종사자의 직종별 현황

계	시설장	사 회 복지사	생 활 지도원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취사부	보조원 운전기사
5	1	1		1		1	1

(4) 프로그램 내용

① 이용 대상자 상담 및 홍보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인의 상태와 욕구를 사정하고,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이용인의 보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

②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변처리, 개인위생관리, 생활용품 관리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일
상 생활능력을 향상하도록 하여 나아가서는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③ 급식 및 목욕서비스 제공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와 간식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리고 매주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청결을 유지한다.

④ 여가 활동 지원

이용노인들은 여가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다양한 취미생활, 오락, 운동 등을 즐기도록 하며, 이용노인들에게 집단놀이, 등산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관계형성의 기쁨을 얻도록 하여, 개인적 즐거움과 흥미를 통하여 잠재능력을 찾아내어 능력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⑤ 의료서비스

건강 체크 및 물리치료, 수지침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사례 관리

사례관리의 개념은 “사례관리자와 노인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장기적 보호계획에 따라 노인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된 조언, 상담, 치료를 실행하고, 동시에 지역사회기관 등의 공식적 체계망 및 가족과 친인척 등의 비공식적인 체계망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서비스와 지지를 노인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통합적 실천 방법” 이다.



⑦ 이용노인 상담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마련

시설이용에 있어서 보호자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이는 노인의 현재상황과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노인의 기능향상을 위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집안에서 노인에 대한 보호의 정보공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⑧ 평가사업

주간보호시설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욕구평가, 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프로

그럼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노인 서비스관리의 기초자료가 되게 한다.

· 주간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30~10:00	등 원				
10:00~10:20	일상생활훈련 / 건 강 체 조				
10:20~11:00	오전간식 및 휴식				
11:00~12:00	노래교실	한글교실	미술활동	음악활동	요리
12:00~13:30	점 심 시 간				
13:30~15:00	비디오시청주 말이야기 나누기	원예활동	종이접기 목욕서비스	마사지	참사랑병원 (물리치료)
15:00~16:00	이 · 미용 서비스, 생일잔치				
16:00~17:00	오후 간식 및 휴식				
17:00	퇴 원				

(5) 협력기관

지역 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한국노인 재가복지협회에 가입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6) 파급효과

노인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에 비해 부족한 시설보호로부터 탈피를 유도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시설보호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노인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시설 입소를 연기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 노인을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의 주간보호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게 되면 가족들의 노인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오랫동안 지역사회 또는 가정에서 노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이 보장된다.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가족은 노인보호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노인을 확대하거나 유기하는 일

도 발생하지 않는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시작한 지 불과 4개월째지만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은 물론이며 보호자들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어르신들을 보육하는 형태의 주간보호시설에서 탈피하여 질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봉사자를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보육을 비롯해 정보제공과 지식제공에 또한 힘쓴다.



새터교회



- ☞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147-56
- ☞ 담임교역자 : 안지성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 ☞ 교인 수 : 80명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새터 어린이집, 새터 어린이학교, 열린 가족 상담센터, 새터 녹색가게, 환경 살림의 날 “장롱을 열어라”

일하는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맨 처음 가난한 지역을 찾아들어선 것이 1987년 3월. 가난한 여성들과 아이들의 고달픔에 함께하고자 아이들을 12시간 돌보는 종일탁아방으로 시작한 새터교회가 이 지역의 이웃으로 살아왔던 삶들이 꽤 오랜 세월 지났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바람은 소박한 것 이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는 마음도 없었고 무언가 커다란 지역 사업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기 가난한 여성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희망의 빛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꿈은 여전합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고단한 삶에 꽃 한 송이 피워내는,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안에 자라나는 생명의 나무, 마음껏 뻗어갈 수 있도록 너른 하늘을 내어주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신비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가난한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새터의 일 / 새터교회 지역사회선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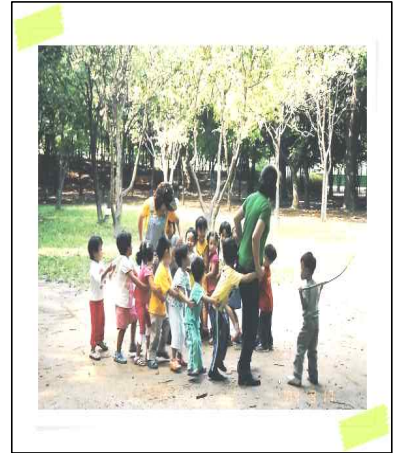
☞ 돌봄 - 새터 어린이집, 새터 어린이학교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돌봄의 공간입니다. 유기농 먹거리를 통해서 튼튼한 몸을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인 교육을 모색합니다.

새터 어린이집

자연친화적인 환경, 놀이감 제공
계절별 캠프, 바깥나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 자연치유력을 키우는 활동



새터 어린이학교

방과 후 다양한 특별활동과 야외활동, 무료급식
계절별 들살이(캠프)
장애아, 비장애아 통합 교육
어린이도서관 자작나무숲 운영

* 새터 어린이집, 어린이학교는 저소득층 자녀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살림 - 새터 녹색가게

물품의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나눔을 통하여, 신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재활용품 교환, 판매 / 환경용품 기획 판매 (면생리대, 환경세제)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베품시장 / 환경 살리기 캠페인

☞ 치유 - 열린 가족 상담센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마음의 억압을 풀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상처를 알아차리고 치유하여 자기 삶의 주인, 소중한 나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자신을 경험하며 따사로운 우리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 성격유형 및 심리검사 / 의료지원, 법률상담 / 소모임 및 열린 강좌

이것이 지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

는 것은, 우리의 이 작은 몸짓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몸짓들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 프로그램소개

1. 열린 가족 상담센터

(1) 시행동기 및 역사

열린 가족 상담센터는 17여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다양한 선교활동 (어린이집, 공부방, 녹색가게 등) 을 펼쳐온 새터교회에서 준비하였다. 새터교회에서는 1999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지역의 여성들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치료 (연극치료, 미술치료, 여성노동자를 위한 자아성장프로그램 등) 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해 왔고, 2002년도 12월에 이를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3년 1월부터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였으며, 2004년 5월에 문을 열기에 이르렀다.

(2) 목적 및 목표

[목적]

열린 가족 상담센터는 심리 정서적 접근방식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억압을 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건강한 지역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표]

① 소중한 나 되기

상처를 알아차리고, 치유하여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게 한다.

- 상처를 알아차리는 나
- 상처를 치료하는 나
- 소중한 존재로 사는 나

② 따사로운 우리 되기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자신을 경험하며, 건강한 이웃,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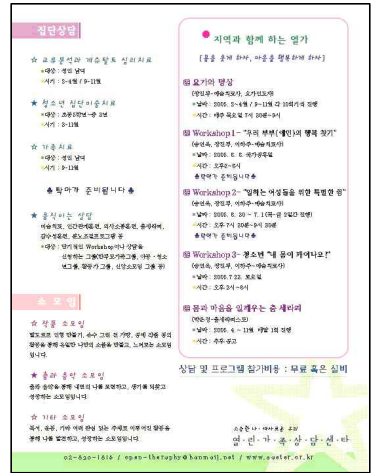
- 아픔을 공감하는 우리
- 더불어 사는 우리
- 평등과 정의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

(3) 시설, 인력, 재정

시설 -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새터교회 예배실), 사무실

인력 - 소장 1인, 상담실장 1인

재정 - 2005년도 예산 35,000천원 [인건비 22,000천원, 사업비 10,500천원, 관리운영비 2,500천원]



(4) 프로그램 내용

개인상담 - 면접상담을 거쳐서 일정한 회기 동안(10-15회) 상담 실시

집단상담 - 미술치료, 인간관계훈련, 대화훈련, 교류분석, 가족치료, 춤 세라피 등

심리성격검사 - MBTI, 문장완성검사, 그림검사, PAC 등

소모임 - 자발적으로 구성된 소모임 (예: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춤과 음악 소모임 등)

법률 및 정신과 상담 연계 - 법률 및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변호사 및 정신과 병원에 연계

(5) 협력기관

신경정신과 - 사느기쁨 신경정신과, 백산신경정신과

빈곤가족 상담기관 - 구로 건강복지센터 상담실, 빵과 영혼 상담센터

전문상담기관 - 성장상담연구소, 민예총 미술치료 과정

자문위원 - 이종현 (상담자문, 정서치료), 이계순 (상담자문, 교류분석), 박승숙 (상담자문, 미술치료), 노지향 (상담자문, 연극치료), 김현수 (상담자문, 신경정신과), 강문대 (법률자문, 변호사)

(6) 파급효과

- 빈곤가족이 억눌려진 정서가 치료되어 활력적인 삶을 살아간다.
- 빈곤가족이 상황에 이끌려서가 아닌, 스스로 의지와 힘을 길러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 빈곤가족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족의 문제, 나아가서 사회의 문제 속에서 인식하고 대처한다.
- 비슷한 경험 (이혼, 한 부모가족 등) 을 지니고 있는 이들끼리의 자조집단 구성을 통해 정서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지체계를 만든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문을 연지 1년이 채 안된 짧은 기간이지만 열린 가족 상담센터는 개인상담 40여 사례와 집단상담 10그룹을 해왔다. 상담을 받게 되는 내담자들은 주로 한 부모 가족 혹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인 경우와 남편의 폭력이 시달리고 있거나 이혼위기의 여성, 경제적 빈곤상태의 여성 및 여성한부모 등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열린 가족 상담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 (금천구 독산동)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평가되어지며, 첫 번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빈곤가족상담이라는 영역을 특화시켜 '지역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고 하는 점이다. 두 번째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상담의 내용과 깊이의 적절성'이라는 점에 있다. 열린 가족 상담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상담방식은 미술치료와 정서치료이다. 미처 언어로 다 표현하지 아동의 경우는 미술치료, 성인의 경우는 억눌려진 정서와 한이 많은 내담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서치료를 통해 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치료에 있어서 보다 '전인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려한다'는 점에 있다. 상담을 하게 되는 내담자들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서 법률상담이나 신경정신과 혹은 쉼터 등으로 연계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 이럴 때 상담센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에 문의를 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심리정서 상담에 그치지 않고, 복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포괄적인 서비스가 내담자에게 갈 수 있도록 시도한다.

추후에는 가난한 이들 안에서도 상담이라는 영역이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전문적이고도 질 높은 상담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상담이라는 높은 문턱을 낮추어 내담자들이 쉽게 상담센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새터녹색가게

(1) 시행동기 및 역사

새터교회는 1990년 봄부터 2001년까지 헌 옷 중심의 알뜰 바자회와, 1999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한 '토요장터'가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영역의 활동으로 시혜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하면서 한 단계 넘어서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었다. 즉 시혜적 차원의 의미부여 뿐 아니라, 재활용운동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 더 나아가 지역 운동적 차원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상설매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2002년 6월 9일 '새터 녹색가게'의 문을 열게 되었다.

(2) 목적 및 목표

-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여,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
- 가난한 이웃들과 재활용 및 나눔을 실천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지키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간다.

(3) 시설, 인력, 재정

- 시설 : 교회에서 약200m 떨어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약 20평 규모
- 인력 : 전담실무자 1명, 자원봉사자 약 15명
- 재정 : 월 2,500,000원 정도의 지출규모 (인건비, 월세포함)

(4) 프로그램 내용

- 월요일~금요일 낮12시30분~저녁9시까지 운영.
토요일은 저녁7시까지.
- 분기별로 자원봉사자모임.
격월로 운영위원회.
- 2002년 10월 13일 강화도 퇴비공장 견학
- 2003년 5월 31일 ~ 6월 1일 환경의 날 맞이 '새터 환경 살림의 날'
 - 바른 식생활 강좌
 - 소박한 유기농밥상 차리기
 - 면생리매 및 친환경물품 전시 및 판매
 - 음식물찌꺼기 퇴비화과정 시연
 - 주민 환경의식 조사

- 2004년 4월 24일 ~25일 신나는 녹색장터 '장롱을 열어라'
- 벼룩시장마당 -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와 참여하는 마당
- 먹거리마당 - 몸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먹거리
- 녹색마당 - 천연세제, 친환경물품 전시, 판매

(5) 파급효과

- 각 가정에서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의류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재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궁극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몸에 익히고,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되어가고 있는 자연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6) 평가 및 추후계획

만 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녹색가게는 현재 지역주민들 250명 정도가 녹색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월 평균 약 400명 정도가 매장을 방문하고 있고, 꾸준히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있는 독산동, 가산동 지역에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인력·재정 면에서 안정이 되질 않아 사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녹색가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이다.



성터교회



-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243
- † 담임교역자 : 방인성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
- † 교인 수 : 500명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공부방, 어린이집, 중국인 근로자 섬기기, 외국인 장기자랑, 이대병원봉사, 장애우 돕기, 장기기증 및 서약, 부채탕감 (교인 간, 이웃공과금 대납, 현금물품지원), 창업지원, 장학금, 경로잔치, 바자회, 일용직 근로자 양말 새벽전도

성터교회는 1954년 4월 22일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신앙의 역사를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보다는 계속되는 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샹터 쉼터 일터”의 표어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샹샹는 샹터, 누구나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사랑과 즐거움의 쉼터, 변화된 새 삶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일터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터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지역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섬김과 나눔이므로 이웃의 아픔을 같이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극빈자, 결식아동, 장애우, 독거노인을 돕고 지역 병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이웃의 필요를 따라 공공건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어린이집, 공부방, 어린이 영화상영, 문화교실, 동네 각종행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는 민족의 과제인 통일이나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것을 맞본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길을 따라서 훈련받아 정치,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 가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일하며 그런 일꾼들과 함께 연대를 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터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동등한 공동체로 서로 돕고 있습니다.

소그룹 교회를 통해 소수의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와 인격이 존중되도록 많은 대화와 진실한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예배의 삶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가정이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운 공동체

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부부가 사랑하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며 그 기쁨으로 교회도 가정처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돕고 존중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세워야하듯이 가정과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역을 합니다.

성터교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신앙적 계급은 존재할 수 없듯이 성도들 모두가 사역자 위치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 의자 없는 것, 예배에 성도들이 참여하여 같이 세워가는 것, 민주적 정관을 갖고 열린 대화로 교회를 꾸려 가는 것,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함께 선교와 구제에 참여하는 것,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예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으로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1. 성터공부방

(1) 시행기간 및 역사

2004년 6월 15일 시작
월요일-금요일 오후 6:00~9:00
(방학기간 :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5:00)

(2) 목적 및 목표

가난의 대물림을 타파하고자 지역사회의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중, 고등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선교하고자 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① 시설 : 본 교회 문화관, 교육관 이용
- ② 인력 : 전담교사 (1), 자원봉사교사 (4)
- ③ 재정 : 17,049,000 원

(4) 프로그램

영 어 : 송유리, 우지원

수 학 : 김정화, 안홍은
 중국어 : 임만식

(5) 협력기관 (동역자)

방장 : 정대성 집사
 이사 : 이수근 장로, 김상대 집사, 김정일 집사
 협력업체 : 노키아



(6) 파급효과

학습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어서 학부모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에게 공부방을 적극 추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해 주민들이 더 호감을 갖게 되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학생들의 기본 학습 습관과 학습기초를 잡아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환경을 개척할 능력을 갖추어 간다.

2. 부채탕감 및 공과금 대납

(1) 시행동기 및 역사

본 교회 회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눅 4:18-19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을 현 시점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도입해서 교회 안에 돈으로 인간갈등이 심각한 경우 등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2) 목적 및 목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빛진 자에게 희망을 주고 교회와 이웃의 담을 허물기 위해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금을 못 내는 극빈자들을 향해 공과금을 대납해 주므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교회와 이웃 간의 벽을 허무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3) 시설, 인력, 재정

교인 : 42,000,000 (5건)
 이웃 : 4,766,190

(4) 프로그램 내용

교회 : 교인끼리의 부채탕감

이웃 : 공과금 대납 (의료보험·전기·가스·수도료)



(5) 협력기관

창신2동 사무소 사회복지과

(6) 파급효과

성도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돈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빛지고 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동사무소도 교회를 신뢰하면서 함께 지역을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교인들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이웃들로부터 교회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본 교회 회년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행한 행사였다. 그러나 부채탕감을 정신을 살려 지속적으로 부채탕감의 의의를 건전한 경제생활을 돕는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쓰고 빚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게 한다.



효성중앙교회



- ☞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95-4
- ☞ 담임교역자 : 조경열 목사
- ☞ 교단 : 기독교대한감리회
- ☞ 교인 수 : 1579명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노인무료급식소, 이·미용 봉사, 경로여행 (제주도), 사랑의 쌀 나누기, 효성동 성탄절 (캐롤공연과 자선냄비), 효성동 마을축제, 풍산 금속담장 그리기

효성중앙교회는 1957년 계산중앙교회에 의하여 효성동 첫 교회로 세워졌으니, 이미 47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소박하고 평안한 교회인 효성중앙교회는 1995년 조경열 목사가 여섯 번째 담임자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장로는 주일 예배 장년 참석인원은 800-1000명 정도이고,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노력하는 교회이다.

일찍부터 효성중앙교회는 교회 인근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꿈을 갖고 있다. 지역의 첫 교회도 하지만 지역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신학적 입장이 견고하다. 효성중앙교회는 효성동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며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임을 고백한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곧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이런 성육신적 목회의 바탕에서 교회는 효성동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효성동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민에게 알게 하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격려를 전해주고, 타향살이 주민들에게 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강조하는 공동체 목회를 경험하게 한다.

"효성동을 예수의 사랑으로" 의 표어로 시작된 예수마을 운동은 교회 내적으로는 효성동의 모든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교회 밖으로는 꽃마을, 효마을, 교육마을 운동으로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꽃마을을 위해서는 담장 가꾸기 운동 사업으로, 효마을을 위해서는 경로식당과 노인교회로, 교육마을은 청소년문화센터와 효성음악문화원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해마다 10월 3일이면 개최되는 "마을축제한마당"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사업이며, "아가페 경로식당"은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관심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시작한 "대우자동차 실직자를 위한 특별기도회" 로부터 현재의 계양구 생활환경 개선운동이라는 지역사회의 현안에 교회적 관심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 복인천 청소년 문화센터 사업, 음악문화원 사업, 어린이집 사업, 인근 중학생에게

봉사학점을 수여하는 섯별자원봉사자학교,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해동지 공부방, 독서실, 지역장학생을 위한 섯별장학회 등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중요한 사업이다.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건강한 전도환경을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 앞으로 교회는 집중사역을 만들어 효과적인 실천이 되도록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복음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건축과 함께 새로운 꿈과 비전이 만들어져 교회공동체의 모든 지도력을 갱신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 프로그램 소개

1. 효성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1) 추진동기 (마을의 모습)

① 건강하지 못한 문화

개항도시로 일찍 서구문화를 경험한 인천은 일찍부터 개방적인 도시였다. 이런 개방성은 한국전쟁 후 인천 곳곳에 산재해 있던 미군부대 문화와 산업체 근로자의 젊은 문화, 그리고 근래의 IT문화와 함께 어울리며 결코 건강치 못한 도시환경을 만들었다. 어느 도시보다도 이혼율이 높고,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도시로 마약을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도시가 인천이라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② 허름하고 삭막한 환경

효성동은 수출 공단 지역이었다.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은신처로 찾아오는 자리가 여기이다. 철수한 공단부지에 세워진 빌라 혹은 작은 아파트 등의 저렴한 주거비와 고속도로 주변의 교통 환경이 이들을 이끌었던 것이다. 크고 작은 공장들 사이로 계획 없이 지어진 집들은 어지러운 골목길을 만들어냈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 공장의 높은 담장들은 거리를 더욱 삭막하게 한다.

③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

일제시대부터 산업시설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찾아온 수많은 노동자들, 여기에 한국전쟁 후에는 이북으로부터 온 수많은 피난민들은 인천을 고향 떠난 사람들의 도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IMF등의 최근 경제 한파를 겪으며 효성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현재는 주민 8만 명이 훨씬 넘는다. 이들의 생활은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 사회적으로도 밀려나 소외된 이들이다. 이들은 언제든지 여건만 허락한다면 떠난다는 생각으로 잠시 머무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마을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2) 진행 내용 (제6회 효성마을 축제 한마당)

① 행사개요

일 시 : 2003년 10월 3일 (금요일) 오전9시- 오후7시

장 소 : 효성2동 주민자치센터 앞마당과 효성중앙교회

목 적 : 효마을, 꽃마을, 교육마을을 지향하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새로운 주민들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고향마을 효성동을 만들기 위함이다.

후 원 : 인천시청, 인천시 담장 없애기 운동 본부, 효성1.2동사무소,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인천의제21, 계양의제21, 인천 iTV, 인천일보, 국민일보, 계양신문, 웨슬리사회봉사단, (사)내일을 여는 집, 인천사랑운동본부, 생명나눔 운동본부, 북인천청소년문화센터, 계양구아파트연합회

홍보 및 참여언론사: 인천 iTV, 인천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계양신문

② 주요행사



담 허물기 (효성중앙교회 담장 55m)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작으나마 녹지를 조성하여 마을을 푸르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날 여러 초빙인사 (국회의원, 행자부, 시장, 구청장 외) 와 더불어 각계각층 (아이에서 노인) 의 주민이 함께 직접 담을 허무는 시연행사를 진행하였다.

마을사랑 걷기대회

마을의 가족, 단체들 그리고 각계의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마을사랑의 한마음으로 마을길 (약 3.5km) 을 걷는 행사이다. 걷는 길의 곳곳에 이벤트를 마련하고, 풍물패들이 함께 행진하는 즐거운 퍼레이드이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기념 옷을 제공하였으며, 완주자 중에서 추첨하여 푸짐한 상품 (제주도 여행권, 컴퓨터, TV 외 다수) 을 주었다.

사랑의 쌀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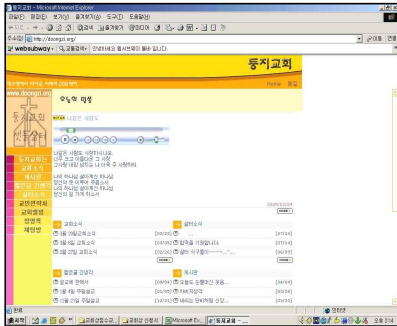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랑의 쌀을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모아진 쌀을 나누는 행사이다.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과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쌀 모으기를 했으며, 이웃돕기 바자회의 수익금도 여기에 보태었다.

축제 한마당 (가수 초청 및 주민 노래자랑)

유명가수를 초청하여 행사를 흥겨운 축제의 자리로 만들고, 주민 노래자랑과 경품 나눔 잔치를 통하여 어우러짐의 자리로 축제의 마지막을 달군다.



등지교회



- ☞ 위치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208번지
- ☞ 담임교역자 : 신경희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 ☞ 교인 수 : 150명
- ☞ 2004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장애우 공동생활, 차량이동봉사, 숨은 장애우 찾기, 장애우 가정 구제

등지교회는 1994년 7월 창립 하였으며, 지체장애우 95명, 시각장애우 10명의 장애우 교회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 서재리에 위치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생활 공동체(그룹 홈)

· 셋 들 샅터(남성)

2001년 4월 20일 개소하여 2004년 7월 현재 5명이 생활 하고 있으며 자활과 재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학, 공공근로, 재활 센터, 방문판매를 하면서 사회적응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배우며 몸에 익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집 (여성)

2003년 7월 13일 교회 근처 공간에서 4 명이 생활하면서 치료와 재활 활동을 활발 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생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혈연중심의 가족제도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가족제도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 치료와 재활 활동

장애인들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

람들은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 활동을 가지지 못하면 경직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지교회는 지역복지관과 연대하여 장애인 교우는 물론 지역 장애인들을 정기적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월 2회 통증치료와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혈압과 당뇨수치를 검진합니다. 분기별로 한의사와 양의사가 교회를 방문하여 지역민과 장애인 교인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치료의 길을 마련합니다.

3.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동지교회 시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월 1회 지역 노인정을 방문하여 안마와 침술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확대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교의 장(場) 역할과 더불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지역 기관으로써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회와 밀착되어 있지 못한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자각하고 지역민을 향한 봉사활동을 유지할 것입니다.

4. 장애인 수술홍보 및 수술비 지원

지체 장애인의 경우, 극히 일부이지만 수술을 통해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어서기조차 힘든 장애인이 수술을 통해 목발을 의하여 걸을 수 있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정보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비싼 수술비로 인해 포기하는 장애인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수술을 주선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료로 저명한 '여수애양병원'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들의 수술을 돕고 있습니다.

5. 장애인 가정 생활비 지원

지역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장애우 가정 중에서는 많은 세대가 단전단수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가정을 찾아 생활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정을 돕고자 하는 익명의 자원자들과 장애인 가정을 연결하여 직접 장애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6) 장애인 차량이동 봉사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요소들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절실한 것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의 확충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를 장착한 대중교통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3월에 30인승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여 장애인 단체를 비롯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차량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에 접근하기 용이한 12인승 2대의 차량으로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1. 장애우 공동생활 운영

➤ 셋들샬터 (남성장애우) 와 아름다운 집 (여성장애우)

① 시행동기 및 역사 - 장애우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이 늘어나면서부터, 홀로 된 장애우와 가족들에게 버림 (혹은 방치) 받은 장애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남성장애우 공동생활인 '셋들샬터'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를 개소하여 현재 8명의 남성장애우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우들의 생활을 2002년 7월 등지교회 8주년이 되면서, 교회 근처의 32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름다운 집'을 개소하였다.

② 목적 및 목표 - 홀로 된 장애우들은 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형편이 어려운 장애우들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다. 공동생활을 통한 가족의 소중함을 실천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에 실현하고자 시작되었다.

③ 시설 및 인력, 재정 - 현재 남성장애우들은 교회건물 1, 2층 주택 (약 24평) 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우는 32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총 생활하시는 분은 12명 이고, 사회복지사 1명과 생활도우미 (조리사) 1명이 함께 거주한다.

현재 정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교회재정으로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와 전체

운영비를 합하면 약 3000만원의 재정이 든다.

④ 프로그램 내용 - 지체장애우들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할 뿐이지, 다른 모든 의식은 건강하다. 그래서, 시설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예인’이라는 작업공동체를 만들어 작은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하고 있는 일은 인쇄, 도장, 열쇠, 고무인, 잉크리필 홈페이지 제작 등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 현재 공동생활의 식구가 3명이 출근하고 있다. 재활운동을 지역복지관에서 병행하고 있다.

⑤ 협력기관 - 지역복지관인 신당복지관, 성서복지관과 연계하여 ‘푸드뱅크’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생활가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달구벌복지관 (장애우복지관)과 협력하여 운동재활을 하고 있다. 이 재활운동에는 교우들 뿐 아니라, 지역장애우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⑥ 파급효과 - 홀로 된 장애우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의미가 살아나고 있고, 또 공동체를 통한 서로 간의 부족함을 메우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장애우 공동생활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되고 있다.

⑦ 평가 및 추후계획 - 공동체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서로간의 이해차이, 문화적인 차이, 세대 차이 등 불편한 것도 많지만 장애우교회의 한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의 건물에 임대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건물을 2004년도에 경매로 교회 소유가 되었다. 2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3층을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설계가 완성되었다. 2층이 4가구가 사는데, 전체가 80평 이상이다. 증축이 되면, 2층 전체를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우들 (아름다운 집) 도 이전할 계획이다. 교회건물 전체가 장애우를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2. 차량 이동 봉사

> 장애우 이동 봉사

① 시행동기 및 역사 - 장애우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지금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장애우들의 이동이다. 특별히 등지교회는 중증 장애우들과 시각장애우가 있어서 이동수단이 절대적이다. 현재 등지교회는 지체장애우가 95명, 시각장애우가 10명이다. 전체 교인 수 160명의 67%가 장애우다. 교회건물의 편의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관공서에



에 편의시설이 완벽해도 이동해서 가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2003년 1월에 38인승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리프트를 장착하여 장애인 이동 리프트버스로 개조하여 30명이 탈 수 있는 차로 개조하였다. 버스가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길을 위해 승합차 12인승 2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다. 장애우들의 사적 공적인 이동봉사를 1994년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다.

② 목적 및 목표 - 장애우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갈 일이 허다하다. 또한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있어도 이동수단이 없기에 몸을 의탁할 봉사자와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등지교회는 이러한 장애우들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 장애우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함이 큰 목적이다.

③ 시설, 인력, 재정 - 리프트버스 30인승 1대, 승합차 (12인승) 2대가 있다. 버스운전을 하시는 기사 분이 1명, 승합차로 봉사하는 분 (로테이션) 이 5명이다. 전체 운영비는 1년 2500만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 ④ 프로그램 내용 - 지역장애우단체의 행사에 차량지원
 지역복지관 행사에 차량지원
 지역장애우와 공동생활가정의 재활운동의 차량이동 등등
- ⑤ 협력기관 - 달구벌복지관 (재활운동, 물리치료)
 신당종합복지관

⑥ 파급효과 - 지역의 장애우들과 동지교회 교우들에게 정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장애우교회가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믿지 않는 장애우들에게 선교의 길이 열리고 있다.

⑦ 평가 및 추후 계획 - 버스기사가 전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의 인건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며, 아니면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숨은 장애인들이 지역에는 많다. 이들을 찾아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사회에 적응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 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제 3 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賞

●●●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제3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賞)》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응모대상 |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든 교회

● ● 응모기간 | 2005년 2월 7일 - 3월 14일

● ●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http://www.cemk.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giyunsil@cemk.org) 접수 후 우편으로 송부


(겉봉투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신청서'로 표기)

주소 | 140-600 서울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271호

문의 | 전화 794-6200, 798-6205 팩스 790-8585

담당 | 우주은 국장, 사회복지위원회 오세란 총무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후원 | 소망화장품 



● ● 선정기준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 교회시설의 개방정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교회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평가방법의 활용도, 지

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정도,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 ● 시상분야 및 심사과정

시상분야 | 전체 10개 교회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특수지역 4개 분야)

* 특수목적: 사회복지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도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 중심인 교회

서류심사 | 1차 서류심사(2005년 3월 7일자 이메일 등록 분까지)

현장심사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교회

시 상 식 | 4월 26일(화)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시 상 품 | 교회사회복지지원금 100만원, 기념동판, 상패(꽃다발)

I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소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신앙의 당연한 실천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교회 사회복지 사업의 계획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교회 지도자 및 평신도 사회복지학교를 개설하여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4월에 창립되었다.

1. 창 립 : 2000년 4월 24일

2. 세 미 나 : 1차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2차 “출판기념회와 세미나”
3차 “교회시설개방에 대한 설문 결과 발표”

3. 교육활동 : “사회복지 실천학교” 운영(2001년)
교회 및 신학대학 순회강사 지원
교회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2003년)
목회자를 위한 교회사회복지 아카데미(2004년)
일반성도를 위한 교회사회복지 아카데미(2004년)

4. 출판활동 :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교회시설개방과 복지 그리고 선교”
“교회사회복지실천사례집”

5. 시 상 : “제1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시상(2003년)
“제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시상(2004년)
“제3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시상(2005년)

6. 위원소개 :

- [고 문] 유의웅 목사(도림교회)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김동엽 목사(목민교회)
- [위원장] 강영실 교수(한국성서대)
- [부위원장] 이영규 사장(우리음식이야기)
- [총 무] 오세란 교수(서울기독대)
- [위원] 김경식 관장 김 인 교수 김동배 교수 김미혜 교수
김수정 교수 김중일 교수 김혜란 교수 김현호 교수
두준기 이사 라창호 이사 맹용길 교수 박경숙 교수
박정수 목사 배은영 교수 백은령 교수 송시섭 변호사
오창섭 교수 유희정 박사 윤종호 사장 이기영 교수
이만동 목사 이무영 교수 이영분 교수 이창희 교수
정순돌 교수 장혜경 박사 조홍식 교수 최성재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고통받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삶의 희망을 줍니다.



기독교연합봉사단 구성(삼풍백화점), 정신대 할머니 돕기, 사랑의 빵 운동, 나눔의 저금통, '97~'2003 수해지역 지원활동, 북한동포돕기 사업, 제 3세계 재난복구 지원 (사랑의 간염백신, 평화의 젓 염소 보내기 운동)

문화시대에 오염된 대중문화를 감시하고 바른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스포츠신문 개선을 위한 항의운동, 유해간행물 추방운동, 선정성 광고 시정운동, 유흥업소 심야영업허용반대운동, 불건전 음성정보추방운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운동, 인터넷 음란물 추방운동, 대중문화 모니터운동, TV & PC tum off 캠페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합니다.



탈북자돕기, 외국인 노동자지원, 공명선거운동, 후보자 감시운동, 정책선거중심 캠페인, 국정 감사 모니터 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 실업극복 공공정의 실천사업, 컨닝추방운동, 정직지표개발

교회를 돕고,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교회와 사회복지, 깨끗한 총회를 위한 캠페인, 교회의 좋은 사역모델 찾기,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체위원회 활동, 교회정직운동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실천합니다



검소절제운동, 직업윤리확립운동, 정직한 납세운동,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 검소한 결혼문화 만들기 운동, 정직 가이드북 제작, 정직사례보급

기윤실 운동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입니다

정직으로 바른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운동입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운동입니다

건강가정운동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겨자씨포럼, 생활신학정착캠페인, 건강한 가정 문화 만들기, 검소한 혼례, 장례문화만들기, 절제나눔운동, 순결서약, 낙태반대운동,

건강교회운동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교파적인 연대활동을 해 나갑니다

아름다운 교회사역소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교회와 사회복지), 교계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 바른 헌금 운동, 기독교언론모니터, 각교단 총회 모니터, 건전한 기독교문화 형성, 교역자포럼, 대학생NGO포럼, 신학위원회 활동

사회정의운동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전개합니다

공명선거운동, 민주시민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정직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 노동자 지원, 탈북자 정착을 위한 지원, 시민사회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 북한에 쫓겨온 보내기

문화소비자운동

대중문화를 소비자입장에서 감시하고
밝은 대안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컴퓨터 음란물 차단 및 추방운동, 불건전 전화정보 서비스 추방운동, 스포츠신문, 간행물 감시운동, 불건전 방송, 광고 감시 및 항의운동, 영상, 음반, 게임모니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운동, 대중문화 수용자교육, 교사미디어아카데미

기독교가족상담소

인생의 문제를 겪는 개인과 가족들을
각종 교육과 상담활동을 통해 돕습니다

전화상담, 면접 상담, 크리스천 카운슬러 교육, 청소년진료, 성(性)교육, 정신재활프로그램, 용서훈련지도자과정, 부부성격 이해 프로그램, 결혼예비자교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기윤실은 건강가정운동, 건강교회운동, 문화소비자운동, 기독교가족상담 활동, 사회정의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후원이 기윤실 운동의 뿌리입니다.

기윤실 후원은 은행계좌이체, 자동이체, CMS이체, 지로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www.cemk.org)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처 Tel. 02-798-620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후원계좌(서울)

국민은행 037-01-0504-979

농협 074-01-121183

우체국 012401-01-001137

우리은행 821-05-002520

지로번호 7530353

(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